

주택·건설·건축 최신 트렌드 구경오세요

‘강원 에코(ECO)홈페어’ 10월26~29일 춘천 호반체육관

청정 강원도의 주택과 건설, 건축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강원 에코(ECO)홈페어 2016이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17개 시·군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강원지역 최초·최고의 주택·건설·건축 종합전시회로서 △가구 및 실내 인테리어 △친환경 태양열·태양광 시설 △가정용 소품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건설장비 및 공구 등 각 분야의 업체들이 특색 있는 각각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구, 조명, 실내 인테리어시설, 건설·건축 자재 등을 대거 선보여 주민들에게는 내 집을 꾸미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에는 지역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각 시·군의 홍보 부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건설 건축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강원 에코홈페어 2016에 관련 업계의 많은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10월26일~10월29일(수~토요일)
- ◇장소 : 춘천시 석사동 호반체육관 및 특설행사장
- ◇업체 참가비 : 100만원(부스비용)
- ◇참가신청 : 강원ECO홈페어2016 사무국(070-7098-8388)
- ◇홈페이지 : <http://ecohomefair.kr/>
- ◇관람객 입장료 : 무료

- 주최 :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강원일보사
- 후원 : 강원도·춘천시·17개 시군

원주국토청 ‘10대 과제’ 추진

맞춤형 투자를 통해 강원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강원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신개념 국토 트렌드에 부응하는 5개 분야 10대 과제에 대해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재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청은 국토교통부 집행기능 적극 이관, 도로 관할 구역 조정, 지역 상생 벨트 구축 등 업무 기능 개선방안은 국토부에,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보수비 118억원과 제설역량 강화 추가예산 225억원은 국토부, 행자부, 문광부에 건의했다. 전만경 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강원권역 국토교통 인프라 재정비와 지진 등 각종 재난, 재해에 강한 방재형 국토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유학렬기자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9일 오후 2시30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16 대한건설협회

임시총회 및 건설산업 CEO미래전략포럼에 참석.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 29·30일 제주서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업계 재도약 방안 찾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9~30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건설산업의 재도약! 혁신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 극복방안 및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과 전국 16개 시·도회장 및 대의원, 건설사 대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건설단체장, 건설관련 연구



대한건설협회는 29일부터 이틀간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행사 모습. 건설경제 DB

기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연사로는 송석준 국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나선다. 이들은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 방향(건설·주택·교통·물류분야)과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반부패·청렴과 기업의 윤리경영) 등을 주제로 건설산업이 한국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우리 건설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